

2010년 6월 29일 사탄을 대적하며 깨어 있어라(100217)-주사랑

말씀은 곧 나다.
말씀은 내가 어려 있지
영롱한 내 사랑 말씀에 새기어
영롱한 내 신부에게 눈물 어려 주었더니
내 신부 하염없는 눈물로 반자와 눈물로 영롱히 기록하여
섭리사 내 신부들에게
피눈물 영롱히 새겨주니
그 피눈물 같이 흘려줄 자
그 누구랴 내 피눈물 선생 피눈물만 뚝뚝이로구나

<심정의 도>
나의 손에는 피가 난다. 심정의 피가 메마르지 않고 난다. 피흘리는 고통 그치지 않는다. 피흘리는 고통이면 어떠한 내 신부만 구할 수 있다면 내 신부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런데도 내 피눈물 내 혈육의 피에도 구할 수 없는 저 영혼에 심정의 피눈물 흘리니 이것이야말로 쓰리고 쓰리고 쓰리다. 견딜 수 없어 목이 매고 영혼이 매여 온다. 이 고통 그 누가 알랴. 선생만 이 시간 함께 우네

이 시를 듣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해요. 그 피눈물 저도 함께 흘릴게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선생을 위해 가슴 뜨겁게 기도 해주어라. 너도 선생 위한 기도 안한다. 너무 섭리사 기도 안한다. 너무 안한다. 그 정도 기도한 것은 안한다고 처야한다. 섭리사 기도 선생을 위한 기도 안하고 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나 되지 않아서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계속하며 주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사탄에 대해 알아라. 사탄에 대해 교육하겠노라.
사탄은 너를 무너뜨리려고 온다. 네 육신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네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오는 것이다. 깨어 근신하면 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도 의식치 않고 사탄도 의식치 않기 때문에 매일 지고야만한다. 나도 의식, 사탄도 의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탄은 너희 마음 틈이 생기게 하고 그 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에 틈을 주었으므로 더 큰 사탄이 오게 한다. 네가 의식하고 나의 이름으로 물리쳤으면 끝날 것인데 이미 마음에 틈을 내 보였으므로 사탄도 오게 한 것이다. 결국 네가 네 영혼에 스스로 사탄을 붙인 것이다. 섭리사 긴장이 풀어졌다.
늘 기도하라.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항상 먼저 하고서 나를 만나는 것이다.
알겠느냐?
나 여호와, 그리고 구주 예수를 만나는 것을 쉽게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친히 내려와 만나주는 것에 감사하며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네 영혼의 승리를 이루어라.
내 십자가가 승리하였으므로 너도 승리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섭리사 모두는 잘될 지어다. 안녕